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2458
----------	-------

발의연월일 : 2018. 3. 13.

발 의 자 : 박선숙 · 인재근 · 박지원  
기동민 · 주승용 · 박주현  
장정숙 · 김현권 · 윤영일  
천정배 · 노웅래 · 최경환(평)  
김관영 의원(13인)

##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정전 이후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남북, 북미간의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촉발된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으로의 이행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인하고,

나아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착 노력이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 세계평화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북미간의 대화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결정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실질적 남북관계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등 전략도발 중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의 불사용 입장을 환영하며, 북한이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분위기와 남북,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이상가족상봉 등 인도적 교류와 문화·체육 등 교류의 활성화, 남북경제협력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압박과 제재, 대화와 협력의 균형을 이루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결정으로 조성된 대화국면이 완전한 비핵화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제안이유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5일 대북 특사단 파견을 통해 4월말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정상간 핫라인 설치, 북측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및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체제안전을 조건으로 하는 비핵화

의지 표명, 대화 기간 중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남한에 대한 무력 불사용,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 평양 초청 등 6개항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였음.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방문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임을 밝힘으로써 정전 이후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조성된 군사적 긴장국면의 해소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남북, 북미간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과 미·일, 중·러 등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확인하며, 한반도 비핵화의 힘겨운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발전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출 하는 것임.